

2021년 동남권 경제전망

백충기 연구위원(cgbaek@bnkfg.com)

2021년 동남권 경제는 2.9%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생산 및 수출 회복과 기저효과로 지표상 성장률은 올해(-1.9%) 보다 크게 높아지겠으나 경제활력을 빠르게 되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의 경우 국내외 경기회복에 힘입어 반등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 자동차, 기계, 석유화학, 철강 등 주요 주력산업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 지속,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은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된다.

서비스업도 부진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소비심리 개선과 정부 지원정책 강화 등으로 민간소비 회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가계부채 부담, 고용시장 부진 등은 회복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건설업의 경우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국내 SOC 예산, 한국판 뉴딜 정책 등 공공부문 정책효과의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주거용 건물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겠으나 상업용 건물은 자영업 업황 부진, 공실률 상승 등으로 제한적 회복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 마이너스 성장 충격에서 벗어날 전망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코로나19 충격의 부정적 영향으로 -4.4%까지 급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가 공식통계를 발표한 1980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2009년(-0.1%)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이다.

2021년에는 5.2%의 성장률을 시현하며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이 올해의 급락세(-5.8%)에서 벗어나 3.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흥국은 같은기간 -3.3%에서 6.0%로 상승하며 선진국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별로는 미국은 민간소비 개선, 정부 재정지원 정책 등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으로 완만한 회복에 그칠 전망이다. 유로 및 일본도 제조업 개선, 수출 증가 등으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겠으나 회복세는 강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은 내수 회복, 정부 투자 확대 등으로 성장세가 빠르게 강화되면서 코로나19 이전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흥국은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미약한 회복에 그칠 전망이다.

2021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국가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세계	3.8	3.5	2.8	-4.4	5.2
선진국	2.5	2.2	1.7	-5.8	3.9
(미국)	2.3	3.0	2.2	-4.3	3.1
(유로)	2.6	1.8	1.3	-8.3	5.2
(일본)	2.2	0.3	0.7	-5.3	2.3
신흥국	4.8	4.5	3.7	-3.3	6.0
(중국)	7.0	6.8	6.1	1.9	8.2
(인도)	7.0	6.1	4.2	-10.3	8.8
(러시아)	1.8	2.5	1.3	-4.1	2.8
(브라질)	1.3	1.3	1.1	-5.8	2.8

자료 : IMF

국내경제, 완만한 회복세 시현할 전망

국내경제는 금년중 마이너스 성장(-1.1%)하겠으나 내년에는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반등하면서 3.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미중 무역분쟁 등의 하방리스크가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회복세는 완만한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책대 정책 및 소비심리 개선 등의 효과로 내년에는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 부문의 호조세와 글로벌 제조업 회복에 따른 비IT 부문 개선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건설투자의 경우 주거용 건물부문 부진 완화, 공공부문 SOC 투자 확대 등으로 증가세로 전환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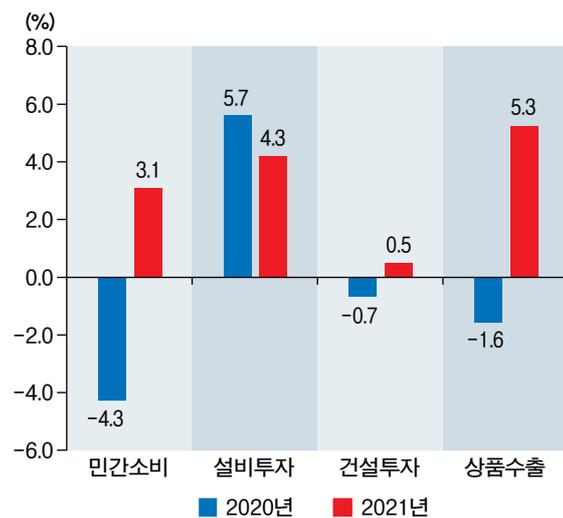
수출은 글로벌 경기 개선, 경제활동 재개, 주요국 경기부양 정책 강화 등에 힘입어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코로나19를 둘러싼 교역 불확실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완화될 경우 수출 회복세는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전망기관	2020	2021
한국은행(2020.11)	-1.1	3.0
한국개발연구원(2020.11)	-1.1	3.1
한국금융연구원(2020.11)	-1.2	2.9
OECD(2020.12)	-1.1	2.8
IMF(2020.10)	-1.9	2.9

자료 : 각 기관, 국제금융센터

국내 부문별 성장률 전망



자료 : 한국은행

동남권경제, 경제성장률 2.9% 기록할 전망

2021년 동남권 경제는 2.9%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생산 및 수출회복과 기저효과로 지표상 성장률은 올해(-1.9%) 보다 크게 높아지겠으나 경제활력을 빠르게 되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의 경우 국내외 경기회복에 힘입어 반등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 자동차, 기계, 석유화학, 철강 등 주요 주력산업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 지속,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은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된다.

서비스업도 부진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소비심리 개선과 정부 지원정책 강화 등으로 민간소비 회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가계부채 부담, 고용시장 부진 등은 회복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건설업의 경우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국내 SOC 예산, 한국판 뉴딜 정책 등 공공부문 정책효과의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주거용 건물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겠으나 상업용 건물은 자영업 업황 부진, 공실률 상승 등으로 제한적 회복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동남권 경제성장률 전망¹⁾²⁾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동남권	2.0	0.9	1.5	1.8	1.1	0.0	0.2	1.4	-1.9	2.9
전국	2.4	3.2	3.2	2.8	2.9	3.2	2.9	2.0	-1.1	3.0

주 : 1) 동남권 경제성장률은 BNK금융경영연구소 추정치(2019년, 2020년) 및 전망치(2021년)

2) 전국은 한국은행 추정치(2020년) 및 전망치(2021년)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BNK금융경영연구소

조선

동남권 조선업 생산은 금년 1~10월중 전년동기대비 -8.8% 감소했다. 부품 조달 지연, 선박인도 일정 연기 등이 부진요인으로 지목된다. 국내 선박수주도 같은기간 -48.0% 감소한 377만CGT로 나타났다¹⁾.

2021년 국내 조선업 수주는 양호한 회복세를 시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수주량이 올해 570만CGT에서 내년에는 1,000만CGT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모잠비크, 카타르발 LNG선 발주 및 환경규제 강화²⁾에 따른 노후선박 교체 등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다만 황산화물(SOx) 규제에 따른 선박교체 수요는 저유가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기대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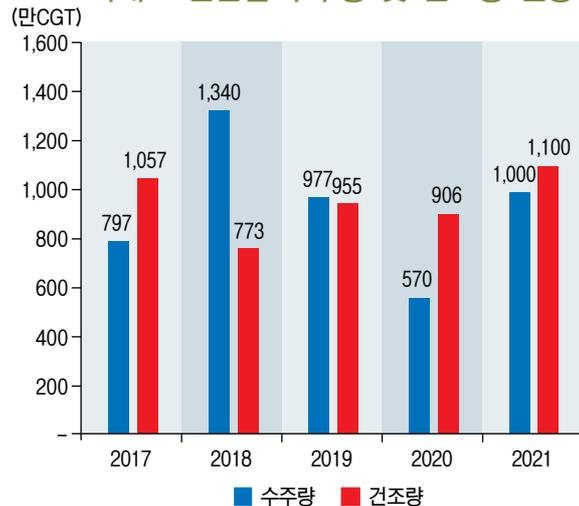
국내 선박 건조량도 금년중 생산차질을 빚으며 감소했으나 내년에는 2018~19년 수주했던 물량의 생산이 다시 정상화되면서 증가세를 시현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1년 건조량은 올해(906만CGT)보다 약 20% 증가한 1,100만CGT로 예상된다³⁾.

동남권 조선산업 생산 증가율



주 :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2020년은 1~10월 기준
 자료 : 통계청

국내 조선산업 수주량 및 건조량 전망



주 : 1) 2020~21년은 한국수출입은행 전망치
 자료 : Clarkson, 한국수출입은행

1) 전세계 교역량 급감으로 금년중 글로벌 선박발주가 -48.4% 줄어든 1,156만CGT에 그친 데 주로 기인함. 같은기간 중국 수주량은 522만CGT, 일본은 105만CGT로 조사
 2) 에너지효율지수(EEXI, 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 규제 시행 및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ETS, Emission Trading System) 적용 등 환경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흐름
 3) 최근 몇 년간 대형조선사 중심으로 LNG선 등 고부가가치선 수주가 이뤄지고 있음. 반면 중형조선사는 수주 가뭄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범용제품 중심의 조선기자재업체 어려움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

자동차

동남권 자동차 생산은 금년 1~10월중 전년동기대비 -13.2% 감소하며 마이너스 증가세를 보였다. 국내 내수판매가 개별소비세 인하 및 신차 효과 등으로 같은기간 7.9% 증가한 156만대 실적을 시현한 반면 수출이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수요 위축 등으로 -22.9% 감소한 153만대에 그친 데 주로 기인한다.

2021년 자동차 산업 업황은 수출 회복에 힘입어 개선될 전망이다. 올해 전세계 자동차 수요는 전년대비 16.7% 감소한 7,500만대에 머물렀으나 내년에는 10.7% 늘어난 8,300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수도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가 기대된다. 다만 코로나19 불확실성,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전기차 등 친환경차 시장 성장세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⁴⁾. 내년에는 유럽연합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 본격화, 전기차 보조금 상향 조정⁵⁾ 및 미국의 친환경 정책 강화 등의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동남권 자동차산업 생산 증가율



주 :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2020년은 1~10월 기준
 자료 : 통계청

글로벌 자동차 수요 전망

구 분	2021년 (백만대)		
	2019년	2020년	2021년
전세계	90.0	75.0	83.0
중국	25.5	23.6	25.2
유럽	20.7	16.5	19.0
북미	20.2	16.4	17.9

주 : 1) 승용차 기준
 자료 : LMC Automo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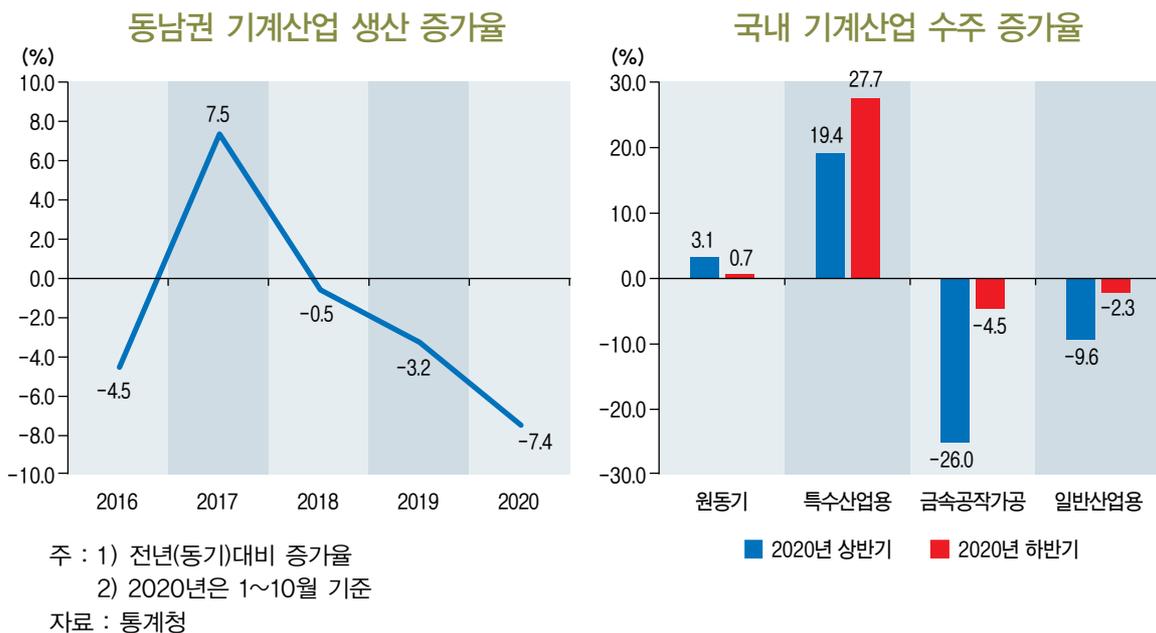
4) 세계 친환경차 판매량은 2015년 226만 수준이었으나 2019년 527만대까지 상승하며 빠르게 증가
 5)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 책정액은 2019.11월~2025.12월까지 최대 6천유로이나 2020.7월~2021.12월중 한시적으로 최대 9천 유로까지 상향 조정하는 등 유로지역 주요국은 전기차 구매관련 지원 정책을 확대

기계

동남권 기계산업 생산은 금년 1~10월중 전년동기대비 -7.4% 감소했다.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도 글로벌 투자 위축, 중국 수입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줄어든 데 기인한다. 다만 금년 상반기중 부진했던 기계수주는 하반기 들어 건설광산기계 등 특수산업용 기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금속공작가공 기계, 일반산업용 기계도 감소폭을 축소하는 등 업황전반이 개선흐름을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도 이와같은 회복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내수의 경우 조선, 자동차 등 주요 전방산업이 회복하고 설비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SOC 투자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26.5조원)에 달하면서 업황 반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년중 부진했던 수출 회복도 기대된다. 무엇보다 중국의 3조 7,500억 위안 규모의 양신일중(兩新一重)⁶⁾ 정책 추진 등으로 건설기계 판매 호조세가 예상된다. 또한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제조업 경기 반등 및 유가 상승에 따른 중동지역 설비 투자 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6) 양신은 신형인프라와 신형도시화, 일중은 중대공정사업(교통, 수리시설 등 중대 인프라 건설 사업)을 의미

석유화학

동남권 석유화학산업 생산은 금년 1~10월중 전년동기대비 -3.9% 감소하며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언택트 기조 영향으로 포장재,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늘어나면서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합성수지 수요는 증가했으나 합섬원료, 합성고무는 소비둔화, 제조업 부진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자동차, 건설, 전자, 섬유 등 주요 전방산업이 회복하면서 내수부문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석유화학제품 수출의 약 44%를 차지하는 중국의 경기호조세 및 유가 상승에 따른 제품단가 상승 등으로 수출도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글로벌 수요 회복이 기대되고 있다. 금년중에는 에틸렌 신규 생산능력이 역대 최대치인 연간 1,200만톤까지 높아졌으나 신규 수요는 오히려 감소(-200만톤)하며 부진이 심화되었다. 하지만 내년에는 신규수요가 1,100만톤까지 늘어나면서 업황은 다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동남권 석유화학산업 생산 증가율



주 :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2020년은 1~10월 기준
 자료 : 통계청

글로벌 에틸렌 연간 생산능력 및 수요



주 : 1) 연간 신규 생산능력 및 수요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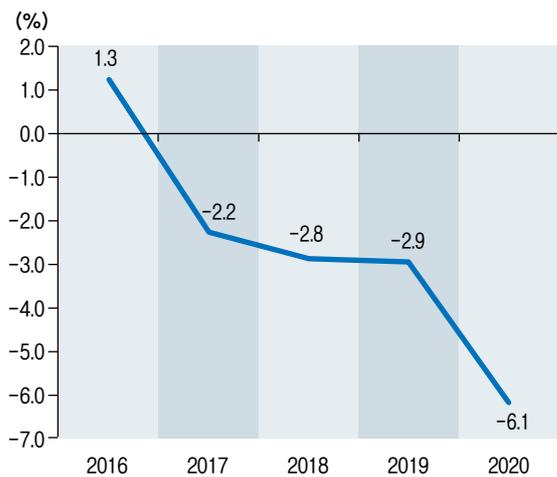
철강

동남권 철강산업은 금년중 전년동기대비 -6.1% 감소하며 2017년 이후 4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건설, 자동차, 조선 등 국내 전방산업이 부진한 가운데 코로나19 영향으로 글로벌 철강 수입수요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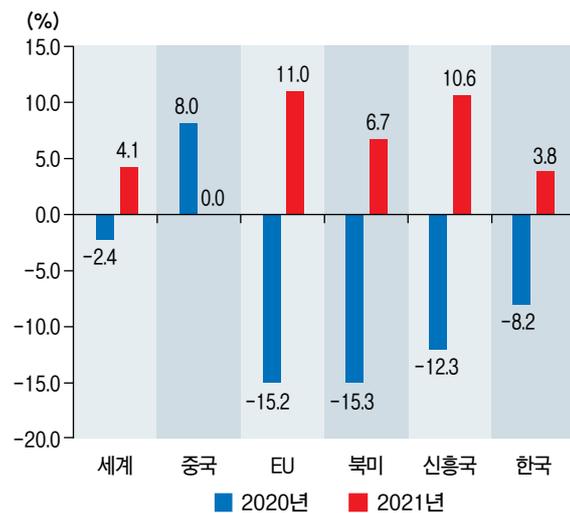
2021년 동남권 철강산업 업황은 대외여건 개선에 힘입어 회복이 예상된다. 글로벌 철강수요가 올해 마이너스 성장(-2.4%)에서 벗어나 4.1% 증가하면서 수출 증가세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금년중 부진했던 EU(11.0%), 북미(6.7%) 등 주요국 대부분이 경제 활동 재개, 기저효과 등으로 수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내수도 정부 경기부양 정책, 동남권 주력 제조업 회복 및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세를 시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EU 세이프가드 연장 가능성⁷⁾ 등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동남권 철강산업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권 철강산업 생산 증가율



세계 철강수요 증가율 전망



주 :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2020년은 1~10월 기준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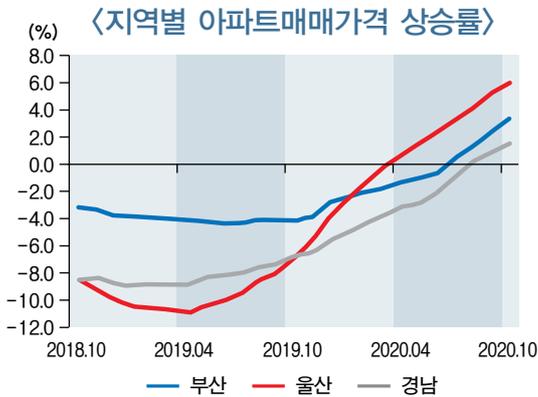
자료 : 세계철강협회

7) EU 세이프가드는 26개 철강품목을 대상으로 쿼터를 초과할 경우 25%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최근 유럽철강협회는 EU 집행 위원회에 2021년 6월말 종료되는 철강 세이프가드를 연장해 줄 것을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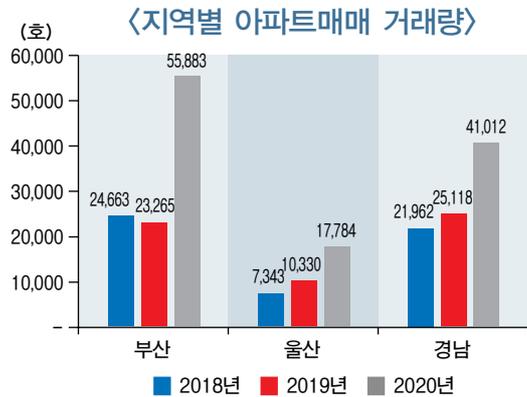
[참고] 동남권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

최근 동향

- 동남권 아파트매매가격은 금년 3분기 들어 전지역이 상승세로 전환
 - 2017년 4분기 이후 12분기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
 - 금년 1~10월 기준으로 동남권 29개 시군구중 가격 상승지역은 11개, 하락지역은 18개로 조사되어 지역간 양극화는 지속
 - 울산 남구(5.2%), 부산 해운대구(4.3%), 부산 수영구(3.6%)가 최대 상승폭을 시현
- 아파트매매거래량의 경우 부산, 울산, 경남 모두 올해들어 큰 폭 증가
 - 부산이 1~10월중 전년동기대비 140.2%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울산(72.2%), 경남(63.3%) 순



주 : 1)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 통계청



주 : 1) 각년도 1~10월 누계 기준
자료 : 한국감정원

향후 전망

- 동남권 부동산 시장은 풍부한 유동성, 주택구매 성향 확대, 공급부담 완화 및 지역경기 개선 등을 감안할 때 상승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나 정부 규제정책 강화 등으로 가격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지역별 입주(예정)물량]

- 동남권 : 86,437호(2019년) → 49,767호(2020년) → 27,851호(2021년)
- 부 산 : 25,554호(2019년) → 27,399호(2020년) → 17,674호(2021년)
- 울 산 : 12,771호(2019년) → 3,146호(2020년) → 661호(2021년)
- 경 남 : 48,112호(2019년) → 19,222호(2020년) → 9,516호(2021년)

[참고문헌]

산업연구원, “2021년 경제·산업 전망,” 2020.11
 한국금융연구원, “2021년 경제 및 금융 전망,” 2020.11
 한국무역협회, “2020년 중국의 6대 정책 방향과 시사점,” 2020.06
 한국수출입은행, “해운조선업 2020년 3분기 동향 및 2021년 전망,” 2020.10
 _____, “석유화학산업 동향 및 전망(working paper),” 2020.11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0.11
 현대경제연구원, “2020년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과 시사점,” 2020.11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0.10
 LMC Automotive, “COVID-19 Automotive Sector Impact Report?,” 2020.11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20.12
 세계철강협회, www.worldsteel.org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한국석유화학협회, www.kpia.or.kr

BNK경제인사이드 발간목록

2016

07	브렉시트와 지역경제
08	동남권 상장기업 경영실적 분석
09	동남권지역 대출 및 예금시장 동향
10	동남권지역 소매판매 동향 및 특징
11	2017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동남권 수출 변화 및 시사점 : 최근 5년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2017

01	동남권 아파트 가격 동향 및 전망
02	4차 산업혁명과 동남권 일자리
03	동남권 기업의 인도차이나반도 진출현황 및 시사점
04	글로벌 환율동향과 동남권 경제
05	원자재시장 동향 및 시사점
06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과제
07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동남권의 미래
08	동남권 주력산업 수출동향과 전망
09	동남권 산업생태계와 향후 과제
10	인구구조 변화와 동남권의 과제
11	2018년 동남권 경제전망

2018

01	동남권 수출과 지역경제
02	동남권 자동차 부품산업 동향과 전망
03	동남권 부동산 시장 점검
04	동남권 서비스업 고용 변화
05	동남권 뿌리산업 현황 및 시사점
06	동남권 100대 기업 변화
07	동남권 기계산업 현황 및 전망
08	동남권 철강산업 현황 및 시사점
09	최근 10년간 지역금융시장 변화 분석
10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
11	2019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8년 동남권 경제

2019

01	G2경제 진단 및 시사점
02	동남권 건설업 현황 및 시사점
03	동남권 자영업 현황 및 시사점
04	사물인터넷 산업현황과 동남권 발전과제
05	동남권 산업단지 현황 및 발전 방안
06	동남권 강소기업 특징 및 시사점
07	2019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동남권의 일본 수출입 현황 및 시사점
09	동남권 소비동향 및 시사점
10	동남권의 아세안 교류 현황 및 발전과제
11	2020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9년 동남권 경제

2020

01	2020년 동남권 수출 여건 점검
02	동남권 관광산업 현황 및 시사점
03	동남권 주요 상권의 변화 분석
04	동남권 제조업 현황 진단
05	동남권 경공업 동향 및 시사점
06	동남권 고용구조 변화와 향후 과제
07	2020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뿌리산업 개편과 동남권 발전과제
09	동남권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
10	동남권 기계산업 동향 및 시사점
11	2021년 동남권 경제전망

BNK 금융그룹
Busan N Kyungnam

언제나, 어디서나
“I'm banking!”

BNK는 새로운 금융을 만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하게
BANK를 바꾸다
BNK



BNK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케이뱅크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신용정보 BNK 시스템 BNK벤처투자 BNK생명구단

BNK BNK금융지주

제2020-11호

신고번호 부산남, 라00006

신고일자 2016년 10월 14일

발행인 김지완

편집인 김성주

발행처 BNK금융지주 (www.bnkfg.com)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연락처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인쇄 애드벤처

2020년 11월 30일 발행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